

IT업계, 서브컬처에 AI·XR 결합… ‘오타쿠 시장’ 정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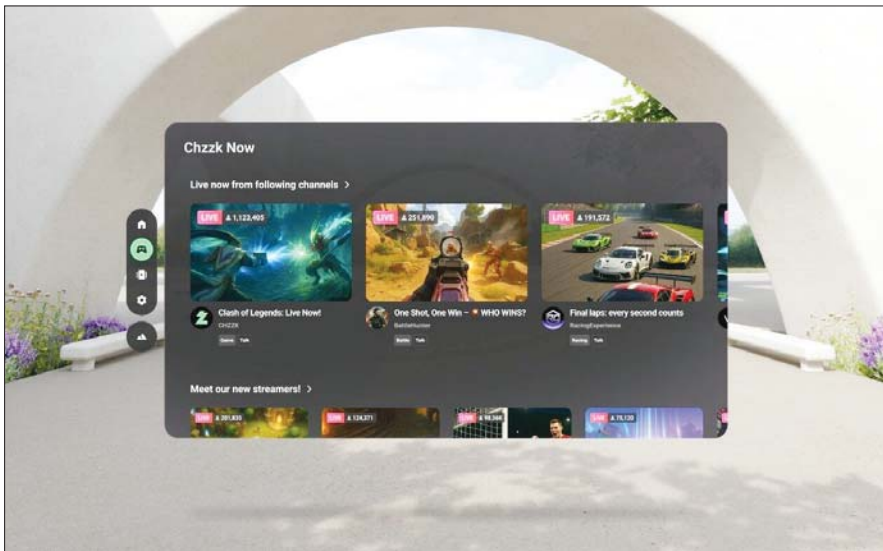
〈무언가에 크게 빠져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일본어〉

네이버 버추얼 플랫폼 ‘치지직’
XR 기기 특화 버전으로 몰입감 ↑
스캐터랩 ‘제타’, 폭발적인 반응
소셜 챗봇으로 정서적 안정 성과
kt 밀리의서재, 콘텐츠 IP 공략

‘오타쿠(무언가에 크게 빠져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일본어) 시장’으로 불리던 서브컬처가 IT 업계의 새로운 금맥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 때 소수 마니아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이 시장의 잠재력이 입증되면서, 각 기업이 자사 기술력을 결합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으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네이버는 버추얼 스트리머 플랫폼 ‘치지직’을 확장현실(XR) 기술과 연계해 ‘웹툰 점프’를 노리고 있고, 스캐터랩은 2차원 캐릭터와 대화할 수 있는 서비스를 통해 MZ세대를 사로잡았다. 밀리의서재도 웹툰·웹소설 서비스를 론칭하며 서브컬처 시장 공략에 뛰어들었다.

14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IT 업계가 ‘오타쿠 시장’으로 불리던 서브컬처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다.



치지직XR에서 치지직 라이브 스트리밍 콘텐츠를 감상하는 화면.

/네이버

가장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는 곳은 네이버다. 네이버는 최근 스트리밍 플랫폼 ‘치지직’의 XR 기기 특화 버전인 ‘치지직 XR’을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등록했다. 이는 이달 출시 예정인 삼성전자의 XR 기기 ‘프로젝트 무한’에서 가장 먼저 만나볼 수 있을 전망이다. 치지직 XR은 2D와 3D를 넘나들며 눈앞에서 스트리머를 만나는 듯한 몰입감 높은 경험을 제공하고, 여러 방송을 동시에 탐색하는 ‘멀티뷰’ 기능 등을 지원한다.

이러한 네이버의 자신감은 ‘치지직’의

성공적인 시장 안착에서 비롯된다. 지난해 12월 서비스를 시작한 치지직은 트위치의 국내 철수와 맞물려 버추얼 스트리머 콘텐츠에 집중 투자하며 빠르게 성장했다. 그 결과, 지난달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 242만 명을 기록하며 경쟁 플랫폼 ‘썸(SOOP)’을 제치고 국내 1위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

네이버는 1784 사옥에 3D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 ‘모션 스테이지’를 구축하고 버추얼 스트리머들을 적극 지원하는 등 기술력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서브컬

처 시장의 주도권을 잡아가고 있다.

스캐터랩은 인공지능(AI) 기술을 서브컬처와 성공적으로 결합시킨 사례다. AI 스토리 플랫폼 ‘제타(zeta)’는 사용자가 직접 만든 AI 캐릭터와 자유롭게 대화하는 서비스로, 출시 1년 만에 가입자 200만명, 생성된 AI 캐릭터 150만개를 돌파하며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제타’의 성공은 단순히 기술적 성과에 그치지 않는다. 최근 스캐터랩이 유니스트(UNIST)와 진행한 공동 연구에 따르면, ‘이루다 2.0’과 같은 소셜 챗봇과의 정기적인 상호작용이 사용자의 외로움을 15%, 사회 불안을 18% 완화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이 입증됐다. 이는 AI 캐릭터와의 교감이 사용자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며, 단순한 놀이를 넘어선 깊은 관계 형성이 가능함을 시사한다. 스캐터랩은 여기에 음성 생성 AI 기술을 더하는 등 서비스를 고도화하며 사용자 몰입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국내 최대 독서 플랫폼 kt 밀리의서재도 서브컬처 시장의 핵심인 스토리 콘텐츠 분야로 영토를 확장하고 있다. 지난 6월 웹소설 서비스를 시작한 데 이어, 최근 웹툰 서비스를 정식 론칭하며 책과 장르 콘텐츠를 모두 아우르는 ‘종합스토리

구독 플랫폼’으로의 도약을 선언했다.

밀리의서재는 ‘궁’, ‘킹스메이커’ 등 이미 검증된 인기 웹툰 작품들을 대거 서비스하는 한편, 자사의 오리지널 웹소설 ‘궁노’를 웹툰으로 제작해 단독 공개하는 등 자체 IP(지식재산권) 확보 및 확장에 주력하고 있다. 연내 웹툰 2300권, 웹소설 1만권 서비스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며, 기존 독서 인구를 자연스럽게 웹툰·웹소설 팬으로 흡수하겠다는 전략이다. IT 플랫폼들이 기술력으로 서브컬처 시장의 문을 두드리다면, 밀리의서재는 강력한 콘텐츠 IP를 기반으로 시장을 섭렵해 나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서브컬처는 이제 더 이상 틈새시장이 아니라 거대한 팬덤 경제로 진화했다”며 “AI, XR 등 첨단 기술과 결합할수록 몰입감과 소비력이 폭발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IT 기업들이 앞다퉈 뛰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과거에는 캐릭터 소비가 단순한 취향의 표현이었다면, 이제는 개인의 정체성과 감정 교류의 방식으로 확장되고 있다”며 “기술력이 감정을 매개하는 시대가 열린 셈”이라고 덧붙였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원스토어용 카톡 지원 종료… 이용자 불만 ↑

카카오 “보안 취약 등 고려해 결정
서비스 종료 전 백업·이전 안내 완료”
원스토어 시장 구조조정 일환 해석

카카오가 지난 8월 26일 원스토어 버전 카카오톡 지원을 공식 종료해 이용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 다만, 백업 기능이 완전히 차단됐다는 일부 주장은 과장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IT업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원스토어용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안드로이드 이용자에게 직접 영향을 미쳤다. 종료 이후 앱 실행과 업데이트가 제한되면서, 일부 기기에서는 ‘원스토어용 카카오톡 지원이 종료됐다’는 알람창이 반복적으로 표시되고 있다.

카카오는 “보안 취약성과 기술 지원 한계를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최신 OS로 업그레이드하거나 구글플레이 버전을 이용하면 정상 사용이 가능하

다”고 밝혔다.

이 조치로 인해 구형 OS(안드로이드 8.1이하)를 사용하는 이용자나 장기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원스토어용 앱은 앱스토어나 구글플레이 버전과 달리 마켓 내 복원 기능이 제한돼, 일부 이용자는 “대화 백업조차 막혔다” “앱이 열리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백업 메뉴 비활성화나 이전 실패 사례가 잇따라 공유되고 있다.

다만, 카카오는 “서비스 종료 전에는 대화백업과 이전이 가능했다”며 “종료 이후 일부 기능이 제한될 수 있지만, 종료 전에 데이터를 옮긴 이용자는 정상적으로 복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원 종료와 업데이트 중단은 사실이지만, 백업 기능이 즉시 차단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번 조치는 이용자 수가 급감한 원스토어 시장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방통위 자료에 따르면 원스토어의

국내 앱마켓 점유율이 2.9% 수준으로 떨어지자, 카카오는 효율적 앱 관리와 보안 강화 차원에서 별도 버전 유지 명분이 약하다고 판단했다. 카카오톡은 각 앱마켓별로 개별 버전을 개발해야 하는 구조라, 이용자 수가 적은 원스토어 버전은 유지비용 대비 효용이 낮았다는 업계의 분석이다.

IT업계 관계자는 “카카오톡이 통신을 넘어 금융·인증 등 생활 인프라로 자리잡은 상황에서 앱마켓 단종이 곧 데이터 단절로 이어질 수 있다”며 “플랫폼 사업자가 디지털 소외계층을 고려한 데이터 이전 대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보안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일부 앱마켓 버전 지원을 종료했다”며 “이용자가 데이터 손실을 겪지 않도록 사전 백업과 이전 절차를 충분히 안내했다”고 밝혔다. /최빛나 기자 vitna@

KT, 팔란티어 플랫폼 국내 확산방안 논의

韓서 첫 CEO 회동 가져

KT가 글로벌 AI 플랫폼 기업 팔란티어와 한국에서 첫 CEO 회동을 갖고, 사내 적용 성과를 바탕으로 국내 산업 전반에 팔란티어 플랫폼을 확산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3월 KT는 팔란티어와의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국내에서 최초로 팔란티어의 ‘프리미엄 파트너’ 지위에 올랐다. 팔란티어는KT의대한민국AX 산업 환경에 대한 이해도와 우수한 네트워크를 통해 국내 시장의 문을 두드린다.

KT 김영섭 대표와 팔란티어 알렉스 카프 CEO는KT 광화문 빌딩에서 다시 만나 그간 추진한 팔란티어 플랫폼 적용 성과를 점검하고 이를 국내 기업에 확산하기 위한 실행 전략을 재정비했다.

KT는 알렉스 카프 CEO 방한을 맞아 제2회 ‘AX 리더 서밋’도 개최했다. AX 리더 서밋은 각 산업에서 인공지능



KT 김영섭 대표(왼쪽)와 팔란티어 알렉스 카프 CEO가 한국에서의 첫 CEO 회동을 진행하고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KT

전환(AX) 흐름을 선도하는 대기업 경영 리더들과 글로벌 경영 리더 간의 포럼이다. 이번 행사에는 대한항공 우기홍 부회장, 메리츠금융지주 김용범 부회장, LS일렉트릭 구자균 회장, 포스코홀딩스 이주태 대표이사 등이 참석해 세계적인 불확실성 속에서 산업별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팔란티어 알렉스 카프 CEO와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서현 기자

네이버, AI 학습에 뉴스데이터 무단 활용 의혹

언론단체, 저작권 침해 소송 나서

네이버가 인공지능(AI) 학습 과정에서 언론사 뉴스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국방송협회와 한국신문협회 등 언론단체들은 네이버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과 공정위 신고에 나섰고, 국회에서는 정부의 소극적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방송협회는 올해 초 네이버

와네이버클라우드를 상대로 공중과 3사(KBS·MBC·SBS) 피해액 총 6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방송협회는 소장에서 “네이버가 대규모 언어모델 ‘하이퍼클로바X’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뉴스 데이터를 포함한 방대한 콘텐츠를 학습에 사용했으며, 이 가운데 뉴스 비중이 13.1%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네이버는 뉴스 콘텐츠 이용에 대한 허락을 받지 않았음에도 AI 학습과 생성형 서비스에 사용했다”며 “이는 저

작권법상 권리 침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부분 피해액이 이미 5억원을 넘긴 것으로 미뤄 전체 피해 규모가 수백억 원대에 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국신문협회 역시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에 네이버를 신고했다. 협회는 “네이버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신문 기사 데이터를 일방적으로 AI 모델 개발과 서비스 운영에 사용했다”며 “이는 저작권 침해이자 언론사 사업 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최빛나 기자

네이버 D2SF, ‘썬머 로보틱스’에 신규투자

비전센서 독자방식으로 구현한 기업

네이버의 기업형 벤처캐피털인 D2SF가 미국 머신비전 스타트업 썬머로보틱스에 신규 투자했다. 이번 시리즈A 라운드는 어플라이드 벤처스가 주도했으며, 썬머 로보틱스는 네이버 D2SF가 전략 투자자로 참여했다.

14일 D2SF에 따르면 썬머로보틱스는 로봇의 ‘눈’ 역할을 하는 비전 센서를 독자적 방식으로 구현한 기업이다. 마이크로초 단위로 빛의 반응을 감지하는 레이

저 이벤트 센서를 활용해 기존 카메라 기반 센서 대비 4배 빠른 속도, 0.1mm 수준의 초정밀 측정, 그리고 높은 전력 효율과 데이터 처리 성능을 구현했다.

이 기술이 적용된 ‘Kortx’ 솔루션은 제조, 물류, 자동차, 반도체 산업 현장에서 다이내믹 조립, 품질 검사, 부품 핸들링 등 복잡한 공정을 자동화한다. 전통적인 비전 시스템이 어려움을 겪는 비정형 환경에서도 높은 제어 성능을 입증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최빛나 기자